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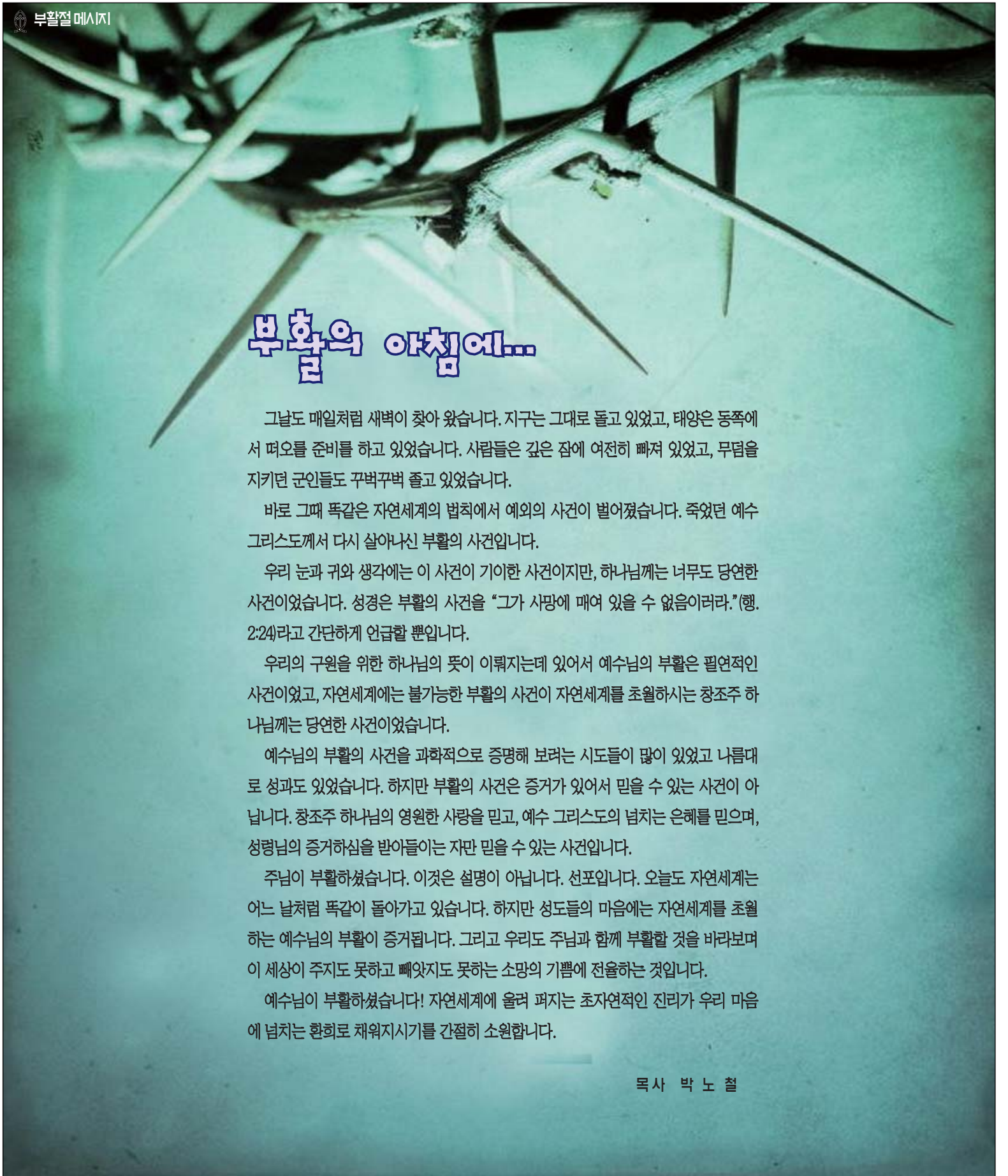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부활의 아침에...

그날도 매일처럼 새벽이 찾아 왔습니다. 지구는 그대로 돌고 있었고,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잠에 여전히 빠져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똑같은 자연세계의 법칙에서 예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 눈과 귀와 생각에는 이 사건이 기이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사건을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이러라.”(행. 2:24)라고 간단하게 언급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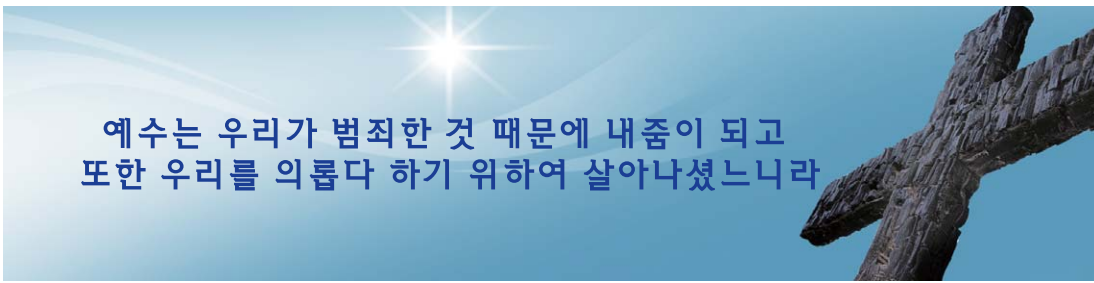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적인 사건이었고, 자연세계에는 불가능한 부활의 사건이 자연세계를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당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사건은 증거가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를 믿으며, 성령님의 증거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만 믿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오늘도 자연세계는 어느 날처럼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에는 자연세계를 초월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소망의 기쁨에 전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연세계에 울려 퍼지는 초자연적인 진리가 우리 마음에 넘치는 환희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 박 노 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주일 I, II, III부 : 성찬예식 / 찬양예배 : 부활절 감사찬양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우리는 이 성찬을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부장: 신용식 장로)가 부활절 칸타타『끌고다 언덕, 감사하리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편 각 교회학교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부활절을 기념하는 달걀을 가지고 나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하며 전도에 힘쓰도록 한다.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

항존직 선거 일정 발표

- 제11대 장로, 12대 안수집사, 11대 권사 -
5월13일(주) 공동의회에서 일괄 선출키로

우리교회 당회는 지난주일 열린 당회에서 제11대 장로 10명과 12대 안수집사 50명, 11대 권사 70명을 선출하는 항존직 선거를 오는 5월13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일괄 실시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합당한 이들이 선출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주기 바란다

2012년 1/4분기 추가 섬김위원 및 주요 행사별 섬김위원 발표

<예배위원회> : 주일 2부 헌금위원: 강신행 황재연 / 주일 1부 안내: 이영란3 / 주일 3부 안내: 박성국 / 찬양예배 안내: 양동덕 / 수요 2부 안내부: 이자혁

<찬양위원회> : 가브리엘 찬양대(11명) 김경애 김경희12 김규영 김금준 오승민 유은경 이현규2 정경민 정주연2 허숙 홍정란1 / 할렐루야 찬양대(6명) 강영자 강재훈 구봉완 김신영1 김정민6 성춘모 / 임마누엘 찬양대(7명) 김선희 김지원7 박준자2 신두호 정선경 정혜영1 한창완 / 베들레헴 찬양대(10명) 고유상 김선희 송용훈 심근선 정용문 오지열 이강진1 이현관 임병석 오준희 / 예루살렘 찬양대(4명) 김인수 김정아1 김현정1 오종례 / 은빛 찬양대(3명) 차장: 이은례 이은상2 임종태 전은찬 / 호산나 찬양대(5명) 김소영12 김영애 김태욱 선혜영 진교숙 / 시온 찬양대(15명) 구민영 김상태 김은영4 김찬삼 김하연 김혜연 김희진1 민영욱 박상훈 박석은 장애순 조성아 조영만 표정희 한대석 /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3명) 안규원 이우나1 천예은 / 아멘 관현악단(5명) 김상훈 신동복 이진호 이혜진7 한민수1 / 필그림중창단(3명) 객원에 김현지1 이승준1

<교육위원회> : 유아부: 김옥순 김혜진4 김희정6 이신영1 장락희 천정운 최경미 / 유치부: 김재욱 나인영 이주희 이혜진7 임영여 장진규 진민선 / 유년부: 김예나1 우승희 / 초등부: 강혜주 유원모 이경희5 이주연 최서원 홍하연 / 어린이 찬양예배: 권보화 김명은 김혜진11 노미소 박유란 / 고등부: 김수임 이조은 임주현 조광희 / 디아스포라: 강은정2 / 새가족부: 김정애2 / 장년부: 김애자 김정희10 박철용 방효철 윤 임영숙 주경자 / 소요리문답부: 김사라 김순덕 박덕호 방효철

이상은 최봉희 / 신앙강좌1부 : 부장 이광열 김상태 김정희 김현관 남상경 박명석 안선광 이상호2 전영돈 최명남 / 소망부: 김철문 박길자 이부자 이우식 이재운

<교구위원회> : 1-6 부다락방장 성기원2 1-8 부다락방장 이미란3 1-9 다락방장 박성신 부다락방장 김순자7 1-15 부다락방장 김은주3 1-21 부다락방장 장선순 1-24 다락방장 김성자1 부다락방장 김영화 4 2-9 다락방장 김춘호 부다락방장 장호영 3-2 부다락방장 오세복 3-19 다락방장 이현미1 부다락방장 김경순3 4-1 다락방장 양득춘 4-2 다락방장 서경화 부다락방장 윤성남 4-12 다락방장 김광민 부다락방장 정창빈 4-13 다락방장 김규태 부다락방장 류기찬 5교구 부교구장 임선철 11-4 부다락방장 김태욱 12-14 다락방장 조희 부다락방장 이정현3 13-21 부다락방장 민경주 13-25 부다락방장 박성희 13-35 다락방장 이상은 부다락방장 임혜정 16-4 부다락방장 박희연(16-15와 합병) 16-9 다락방장 김은희4 16-12 부다락방장 황선옥1

<전도위원회> : 70인전도대: 화평팀: 김정두 김옥순 이성희4 사랑팀: 김수임 박성신 박옥 오종례 우미란 장기숙 최미희1 최현순1 회복팀: 우경희1 박미숙1 박성희3 목요기도팀: 윤금숙 김찬진

<차량부> - 2부 김경철3

<재정위원회> - 계수1부: 윤태욱 계수2부: 김규준 홍승전

<비전2020> - 김정남 이기택 이진수2 최광혁

<경로대학> - 객숙 전용순 진교숙

찬양대원 세미나 및 연합기도회 4월 10일(화요일) 오후 7시 30분 / 101호

서울 교회 찬양대원의 자질 향상과 실력 향상을 위한 찬양대원 세미나가 4월10일(화), 저녁 7시반부터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강사는 서울 시립합창단 지휘자 오세종 교수이며 발성법, 호흡법, 자세, 발음법, 음악적 표현법, 음악적 자세 등에 관하여 훈련을 받는다.

원주희 목사 초청, 금요기도회 4월 13일(금) 오후 8시 20분-본당

4월 13일(금) 금요기도회에서는 말기암 환자 보호시설 '샘물의 집'과 '샘물호스피스교회'를 섬기는 원주희 목사를 모시고 호스피스 선교사역과 간증의 시간을 가진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CGNTV 한국교회 미래를 말한다

박노철 목사는 CGNTV '한국교회 미래를 말한다'에 출연한다. 방송은 4월 9일(월)오후 10시 20분이며 재방은 14일(토) 오전 11시이다. 시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PTV : KT Olleh TV : 556번, LG U+ TV : 183번, SK Btv : 554번 강남과 송파구역은 703번 C&M 고급 케이블로 보실 수 있다. 인터넷은 CGNTV.net '한국교회 미래를 말한다'에서 11일 업데이트 된다.

육군 제 20기계화 사단 진중세례 및 서울교회 군 복무 자들에게 부활절 선물 보내다

지난 3월31일(토) 오후 2시 30분 서울교회 비전2020운동본부는 육군 제 20기계화 사단 샘물교회에서 진중세례 및 성찬을 주관하였다. 이날 125명의 병사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군의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을 복음화한다는 비전 2020 운동은 오늘도 이 나라 군대의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또 2020 본부는 부활절을 맞아 서울교회 교인으로서 군에 복무하는 형제들과 서울교회 반경 4km 이내에 거주하는 군 복무 병사들 중 군에서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 총 44명에게 부활절 선물을 보내고 격려했다. 비전2020운동본부에서는 앞으로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등 특별한 절기에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한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



봄꽃 향기 사랑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성도님께서 운동모 1000점을 나눔의 집 문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운동모는 현재 1000원에 판매 되고 있습니다. 무명의 기증자에게 순례자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성도님들께서 그간 많은 물품들을 가져오셔서 판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목회자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하셔서, 예년에 비해 매출액이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우리 제1권사회는 이 귀한 물질을 신중히 관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잘되다 보니 물건이 많이 빠져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물건이든 환영합니다만 남자 구두나 양복이 인기가 많습니다. 나눔의 집이 여러분의 봄꽃 향기 사랑으로 가득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Happy Easter

Pokoj tob?! (쁘코이 또베 / Peace to you)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께 체코에서 부활절 인사를 드립니다. 체코어로 부활절은 Velikonocce(벨리코노체)라고 합니다. 이는 유월절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체코에서는 부활절에 유월절 어린 양 모양의 과자를 굽기도 하는데, 원래 유월절 뜻이 부활절에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또한 체코의 독특한 풍습으로, 부활절 다음 월요일에 남자 아이가 여러 집을 다니면서 빵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때로 여자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고 건강과 젊음을 가져와 준다고 합니다. 체코



이곳에서도 2012년 부활절을 큰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려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온 성도들이 함께 '홍해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해작전은 부활절까지 각자가 하루에 성경을 3장 읽고 주어진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삶에 자리잡으며, 또 개인의 앞에 놓인 홍해와 같은 문제들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둠을 이긴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슬픔을 이긴 환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패를 이긴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주를 이긴 축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숨을 이긴 찬송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눈물을 이긴 감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망을 이긴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옥을 이긴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다.
 2012년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풍성함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먼곳 소아시아의 한 모퉁이 서머니에서 전광혜 올림

민족에 전해 오던 풍습이 부활절 절기와 맺어진 것이라 볼 수 있겠지요.

아쉬운 일은 오랫동안 천주교 나라였던 체코가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일입니다. 부활절 풍습은 남아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숨어버렸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거리를 지나면서 체코 교회가 복음의 말씀으로 이 땅의 부활절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체코에서 손신일 선교사

목적입니다. 올해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행사는 '나우르즈 사경회(부흥회)'로 '나우르즈'는 이곳 현지의 큰 명절(무슬림들의 새해)입니다. 국가에서 5일간의 연휴를 주는데, 저희는 저희 교회는 몇 달 전부터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큰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4/1)과 부활주일(4/8)에는 '세례식'과 '전도 대상자 초청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종려주일에는 신앙을 고백한 현지인 5명의 세례식이 있게 됩니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후 지금까지 신실하게 믿음생활을 해오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부활주일에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전도운동(태신자 운동)의 마지막 날로써,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뜻 깊은 2012년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양재성·이연주 선교사

부활절 칸타타 초대이 글

골고다 언덕 감사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권세 깨뜨리고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죄에서 자유를,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영원생명을 주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큰 사랑 보여 주셨고 온 세상 위한 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주 고난 받은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등에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를 조롱하였고 흠 없고, 죄 없으신 주님은 살점이 떨어지도록 채찍을 맞으며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망권세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 생명주신 주를 찬양하고 영원하신 주를 찬양, 참 소망되신 주를 큰소리로 찬양합니다.

이 기쁜 부활절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칸타타 "골고다 언덕 감사하리라"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성도들을 찬양예배로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부장 신용식 장로

부활절 축시

부활의 빛

갈보리
 어둠에서 피어나는
 십자가의 피
 정하고 더 정하게
 죽음에서 더 죽음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
 우주의 무게로 작열하여
 죄로 굳은 시퍼런 내 심장에
 한줄기 빛으로 떨어진다

다.이.루.였.다

하늘이 내려와
 휘장이 찢어지고
 사망에서 사망으로 견지신
 영원한 생명이어

군계 달친 무덤
 돌문이 열려
 벗어놓은 세마포
 부활 꽃잎으로 하얗게 나무끼고
 빛을 넘어 빛의 당는
 빈 동굴의 가득한 부활의 생명이여
 이렇듯 형형(炯炯)한 것인가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또 다른 죽음의 나
 울음 덩어리 승리의 가시관
 부활의 빛으로
 방울방울 피어나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신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물이 바다 넘침같이
 성령으로 가득 부어 주시고

오늘도
 맨발로 달려와
 빈 배 한척 내 가슴에 걸어놓고...



2012. 부활절에
 신동기 권사

부활절 - 나의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 부활의 의미는



이지혜 집사(9교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집사 직분을 받을 때, 똑같은 질문을 목사님께 받았습니 다. 그때 그 자리에 왜 저런 질문을 하시나? 나의 믿음에 대한 질문인가? 라고 단순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롬6:4) 그 자리가 저에게는 바로 부활의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크게 두 번의 부활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새 생명을 세례를 통해 받았고, 죽어있던 믿음생활에 대한 더 충만한 믿음의 부활을 집사라는 직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활은 죽음과 삶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에 앞서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인간적 삶의 죽음 후에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올해 2월 둘째주 다락방 모임 질문에 ‘당신은 순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3다락방원들은 그 질문에 대해 오래도록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어야 진정한 삶이 새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들이 내가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롬6:8)

기독교인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저는 매일 실수를 하며,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남편과 싸우기도 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죄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사는 방법은 매일매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깨우침을 부활절을 맞아 다시 새겨봅니다. 저는 아직도 순교하는 것이 두려웁습니다. 하지만 기도합니다. 다시 태어날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4월 8일(주) 섬김의교회 창립예배 설교를 한다. 10일(화) 석학들과의 성경읽기를 소집한다. 11일(수)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WRF(세계개혁주의협의회)이사회 참석차 출국한다. 12일(목) 뉴질랜드 오클랜드 선교사,목회자연담세미나, 13일(금) 크라이스트처치 선교사,목회자세미나를 각각 인도하고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금요예배 설교를 한다. 14일(토) 호주 멜본으로 출발한다.

■ 사임 : 지난 3월31일부로 김재진 협동목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였다. 김재진 목사가 담당하던 신앙강좌2부는 김철홍 목사가 담당하게 된다.

■ 수상 : 하인선 장로 제3회 2012년 신한국인 의료인상

■ 득녀/득남(쌍둥이): 김세호 집사 정신아 집사(7교구)

■ 주간식당봉사: 뽕뽕전도회(4.8) 마리아전도회(4.15)

■ 금주의 식사 : 최형열 집사 김찬진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공진문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만민에게 전도

옛날을 기억하라



한국교회의 뿌리가 된 소래 교회

과거 없는 현재는 없다. 성경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고 말씀한다.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1885년 미국장로교회의 선교사 언더우드 등에 의해 전래되었고, 1912년 처음으로 장로교 총회가 구성되어 올해로 100주년을 맞고 있다. 오직 성경 중심의 칼빈 신학 위에 세워진 장로교를 받아들인 한국 장로교는 수많은 사건과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도해 왔다.

한국장로교설립100주년 기념사업회는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지난 4일 시작하여 10일(화)까지 이어지는 사진전에는 한국의 뿌리가 되었

던 소래교회를 비롯한 초기 한국교회 모습, 문화운동, 의료 및 교육활동, 1900년대 한국장로교회의 부흥의 역사 등을 보여준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역사하신 은혜의 흔적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켜왔고 성장시켜왔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람 바란다. 사진전 장소는 종로에서 인사동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서울미술관이다(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지하 1층).

허숙 권사(편집부)



장로회 공의회 1901년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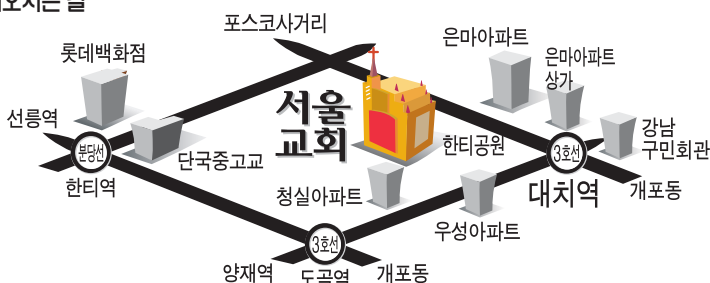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모든 성도들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2. 서울교회 향촌지 선거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3.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하셔서 WRF 이사회, 목회자/선교사 세미나, 교회 설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종윤 원로목사님 내외의 건강을 위해서
4. 금요기도회에 초청되어 오는 샘물호스피스선교회 원주희 목사의 간증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